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3월 16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3월 16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1977년 3월 16일에 창립된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대규모의 자동차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공장터전도 잡아주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첫 중형자동차의 이름을 《대백산》호로 명명해주시였으며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3월 16일공장이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난 기간 많은 자동차들을 생산하여 사회주의대건설장들과 인민군대에 보내줌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였다고 하시면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공장로동계급이 당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일터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도록 고무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총조립직장, 종합가공직장, 제관직장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과학



기술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우리 식의 대형륜전기재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고 치하시였다.

완성단계에 들어간 대형륜전기재가 볼수록 멋있고 동력전달장치들이 원만히 동작하는것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대형륜전기재가 완성되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고있는 대형륜전기재여서 정이 폭 들고 더없이 기쁘다고 하시면서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공장로동계급의 투쟁에 의하여 당에서 정해진 날자에 주체적인 대형륜전기재가 세상이 보란듯이 탄생할수 있게 되였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각종 부속품을 가공하고있는 로동자들과 용접불꽃을 날리는 제관공들의 열의

가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이라 사소한 주저와 동요가 없이 절대적으로 호응하고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본래가 공장안에 차넘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1월 18일기계종합공장에서 질 좋은 기관들이 팡팡 생산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자동차생산과 련관된 부분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한것만큼 3월 16일공장을 모체로 하여 현대적인 자동차공업용을 창설할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3월 16일공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자고 하시면서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3월 16일공장을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전면시키자는것이 당의 의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종업원들과 기술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세계자동차공업발전추세를 알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도 더 잘 꾸리며 공장로동계급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을 훌륭히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자동차산업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하시면서 오늘의 결심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개건현대화를 본래있게 밀고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3월 16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믿음을 항상 명심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도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이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자동차생산기지로 꾸릴 대담한 목표와 야심을 안고 달라붙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생산지휘와 기업관리의 정보화, 생산공정의 무인화,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며 최첨단설비들을 비롯하여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췌히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책임있고 능력있는 일군들과 전문가들로 개건현대화상무를 조직하고 강력한 설계집단을 무어주는것과 함께 자동차공업의 특성에 맞게 협동품생산보장단위들도 현대화하기 위한



# 인민들에게 더 질 좋고 맵시있는 신발을 안겨주시려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얼마전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새로 훌륭히 전변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운동신발들의 가지수가 대단히 많고 맵시있으며 질이 좋다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운동신발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운동신발, 체육신발들을 신고 기뻐할 인민들과 아이들, 체육인들을 생각하니 정말 흐뭇하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날의 원수님의 모습은 인민들에게 질 좋고 맵시있는 제품을 하나라도 더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는 친어버이의 다심하고 인자하신 모습이였다.

신발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의 하나이다. 어떤 형태, 어떤 색깔, 어떤 재질의 신을 착용했는가에 따라 리용자의 체모와 몸단장이 달라지기도 한다. 아무리 옷을 잘 입었다고 해도 그에 알맞는 신발을 신지 못하면 사람의 품위도 떨어진다. 하기에 인류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신발도 더욱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왔다. 지금 세계에는 수많은 신발공장이 있으며 유명한 상표를 가진 신발제조업체들도 있다. 그 모든 것은 다 기업가들의 리용창조를 위한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 목적을 두고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로 신발공업을 날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살의 고삐를 최대한으로 조이고있다. 그런 속에서도 공화국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지고있다. 최근 류원신발공장이 훌륭히 개건되고 질 좋은 신발들이 짙짙 나오게 된것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다.

미국이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고있는 지금과 같이 첩에 한 정세속에서도 나라의 최고령도자께서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신발공장을 몰소 찾아주시고 지도해주신것은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일 제 기 위 대 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해방전 고 무신 한켠레 변변히 신어보지 못한 인민들에게 나라의 주인

된 새 삶과 함께 신발 하나라도 더 좋은것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시였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천과 신발을 비롯한 일용품수품생산을 힘있게 벌려 어려운 전시환경속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상불편을 하루빨리 가질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신 주석님이시였다.

사람들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주체44(1955)년 여름 어느날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는 길에서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나 어린 학생들을 만나시였다. 한달음에 달려와 인사를 올리는 학생들 가운데는 발벗은 한 소년도 있었다. 그 소년을 가까이 부르시여 가정형편에 대하여 물으신 주석님께서서는 아버지가 전쟁시기에 전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를 품에 꼭 껴안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잠시 생각해 잠기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거 보라고, 이 애에게 신발 하나 신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애는 나를 보고 인사를 한다고 하시며 오래도록 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얼마후 그 소년의 집에 이르신 주석님께서서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한 일군더러 소년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신발을 사신기라고 이르시였다.

이 땅의 력사는 이렇게 인민사랑으로 흘러갔다.

위대한 주석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인민들의 신발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언제나가는 천리방선의 고지에 오르시여 병사들이 입고있는 솜옷과 솜신발을 두고 걱정하시였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농촌상점에 들리시였을 때에는 농민들이 신는 사출장화의 질에 대해서도 마음쓰시였다.

언제인가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으시여 여러 가지 형태의 싨달을 녀성일군들에게 신겨보신 장군님께서서는 한번 발을 디디어보라고, 신발이 좋은가 나쁜가고 다심히 알아보시였다. 참 좋다고 대답을 올린 녀성일군들은 장군님을 우러르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첫차리에는 언제나 인민의 리익이 놓여있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세상은 인민들의 세상이고 인민들이 주인인것만큼 좋은 신발을 많이 생산하여 웅당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고 그것을 실리의 기준으로 여기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인민사랑은 오늘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즐기차례 이어지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녀원이였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인민소비품이 차례지게 하시기려 늘 마음쓰신다.

주체103(2014)년 7월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여 신발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개건현대화의 동음높이 올리는 공장을 또 찾으시여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체질과 녀령심리적특성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구두의 질을 세계최고의 수준에 끌어올리도록 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류원신발공장에도 그이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어려여있다. 두해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전변시키는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그이의 사랑속에 이 공장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 자기 단위를 손상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발을 짙짙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인민들에게 차례질 맵시있고 질 좋은 운동신이 대량생산되고있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류원신발공장을 정말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높이 올리고있는 생산중산의 동음소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가로 들린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승리의 진군가로 높이 올려 퍼지는 중산의 동음소리, 이것은 적대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이 있어 이 땅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영원하며 머지않아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아침이 밝아오게 되리라는 신심과 락관을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

김 경 선



하기에 각양 각색의 신발들을 보아주시면



##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게

수년전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전거리에 일떠선 초고층아파트의 맨 웃층인 45층에 있는 한 세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손수 방바닥도 짚어보시고 부엌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배란다에 나서시였다. 평양의 전경이 안겨오는 배란다에서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바람소리가 들린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창문가에서 들릴가말가 하는 작은 바람소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초고층에서 바람이 센것을 웅당한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바람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여러 호동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다시금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게 창문틀에 바람막이를 잘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 인민이 승마의 주인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11월 어느날 미림지구에 자리잡고있는 기마훈련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기마훈련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자신께서는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릴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해당 부문에 형성안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고 오늘은 훈련장의 실태를 직접 료해하려고 현지에 나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승마운동은 사람들에게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는 대단히 좋은 운동이라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훌륭히 꾸려진 승마장에 와서 승마운동을 하는 과정에 몸과 마음을 단련할뿐 아니라 생의 희열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개건되는 승마장의 명칭을 《미림승마구락부》로 달아주시면서 승마구락부를 훌륭히 꾸려 인민들이 마음껏 승마운동을 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북침전쟁야망실현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노려오던 미국은 1976년 8월 중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쌍방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수 없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의 나무를 제멋대로 도벌하려다 그것을 제지하는 인민군경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던것이다. 그것은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이였다. 이것은 당시 미국이 사건현장 주변에 촬영기들을 몰래 설치하고 사건이 터지자 그 전과정을 찍어내어 마치 인민군대의 《도발》인듯이 여론을 날조한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불의의 정황에서 인민군경무원들은 단호한 자위적조치로 대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불과 몇명의 소수인원으로 수십명의 상대를 단호하게 제압하였다.

이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판문점사건》이다.

《판문점사건》이 터지자 미국은 기다렸다는듯이 《군사행동》과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르렁대면서 《비상대기령》을 내려 남조선주둔 미군과 남조선군이 완

전무장을 갖추고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방대한 침략 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전개하여 정세를 전쟁점경으로 몰아갔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에 의해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험악한 정세가 조성되게 되었다. 세인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정세를 주시하였다.

## 령장의 담력과 지략 (3)

### 《세번째 대결》의 결말

세계의 언론들과 정세분석가들은 이 《사건》을 조선전쟁 이후 조선과 미국사이에 벌어진 《세번째 군사대결》이라고 하였다. 1회전은 《푸에블로》 호사건이고 2회전은 정찰기 《EC-121》 사건이였다. 1회전과 2회전에서 련속 패한 미국은 제3회전에서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전군에 명령을 하달하시여 전투태세에 들어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놈들이 덤벼들면 한번 본때있게

싸워보자고 하시면서 적들의 도발을 짓부시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본때를 보여준 판문점초병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며칠후였다. 첩에하고 긴장한 정세가 조성된 그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을 만나시고 건설문제를 론의하시면서 평

국에 조선에 대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위한 작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대통령의 명령이 있기만을 기다린다는것을 공포했을 때에도 평양대극장에서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시연회를 보시고 작품완성을 지도하시였다.

불밝은 대극장무대에서는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름다워라 이 강산은혜론 해빛넘치고 행복하여라 사람들수령님 한품에 사네수천년 오랜 세월 바라오던 그 소원인민의 락원이 이 땅우에 꽃피네...

노래소리는 그대로 미국의 전쟁위협에도 끄떡없는 담대무쌍한 조선인민의 대답이였다.

미국은 얼마후 조선은 군사적방법으로도 굴복시킬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기가 질려 전쟁작전을 포기하고말았다.

조선은 미국과의 군사적대결 《제3회전》에서도 또 다시 통쾌한 승리를 이룩한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본사기자

# 송 고 한 후 대 사 랑 을 전 하 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을 련이어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생산된 질 좋은 제품들도 보아주시며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게 된것이 기쁘시여 환한 웃음을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며 온 나라 인민들을 뜨거운 걱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해의 첫 아침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 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하신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이해에도 인민사랑의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그 길에서 찾아주신 공장들 가운데는 평양가방공장도 있다.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고 자신의 행군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하시며 그 공장에서 만든 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떠들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을 지금도 이 공장 로동자들은 잊지 못하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평양가방공장은 배낭식가방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맵시있고 질 좋은 가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 우리가 만난 책임일군인 정명철은 공장이 자라나는 후대들과 인민들에게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만든 질 좋은 가방이 차체지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건설되였다고 하면서 공장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몇해전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이께서는 한순

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악기와 다른 소지품들까지 들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며 배낭식가방을 구상하신것이였다.

주체 103(2014)년 1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여 우리 학생소년들의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지난해 1월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천을 190여개나 되는 학생가방도안들을 공장에 보내주시기도 하시였다.

이렇듯 그이의 세심한 지도속에 공장이 일떠서게 되였다.

그이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뜨겁게 절감하며 우리는 제품견본실에 들어섰다.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지난해 20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이끄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가방공장건설을 몸소 받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을 여유건물을 내어 할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멋쟁이공장으로 꾸릴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한해가 다가는 12월에는 190여개나 되는 학생가방도안들을 공장에 보내주시기도 하시였다.

이렇듯 그이의 세심한 지도속에 공장이 일떠서게 되였다.

그이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뜨겁게 절감하며 우리는 제품견본실에 들어섰다.

견본실에는 이 공장에서 만든 200여종의 가방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올해 정초 공장에 오시여 제품견본실에 진렬된 이 가방들을 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방들을 멋있게 만들었다고,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가방들을 보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정말이지 제품견본실을 떠나고싶지 않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와 동행한 정명철의 말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을 제품견본실, 재단작업장, 재봉작업장, 포장작업장, 과학기술보급실, 통합조종실, 기술준비실, 도안창작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더 깊이 느낄수 있었다.

자식들의 책가방을 두고 마음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이께서는 가방은 눈맛, 손맛이 좋아야 하며 자크식으로도 만들고 끈식으로도 만들며 장식을 풀색, 노란색, 빨간색을 비롯하여 여러가지로 하여 가방을 다색화,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이 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자식들에

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어머니다운 정성을 기울일데 대하여 이르시였다고 한다.

재단작업장을 돌아보시면서 레이자재단기를 보시고 손로동이 없는 완전무인화체계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재단뿐아니라 재봉, 인쇄, 날염,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르히 갖추어놓은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평양가방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설비의 국산화비율을 95%이상 보장한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거듭 칭찬하시였다. 완성제품창고에는 가방이 그득히 쌓여있고 원자재창고에는 해당 공장들에서 생산한 가방천과 자크, 테프를 비롯한 원료와 자재들이 가득차있는것을 보시고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말 흐뭇하다고 하시였다.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그이의 드림없는 신념과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렇듯 그르한 가방공장이 일떠설수 있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에로부터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오만하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우리에게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하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서 만든 배낭식가방에 몸소 《소나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였다.

진정 후대들을 나라의 제일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있어 새세대들은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고있는것이다.

그곳을 떠나는 우리의 귀전에 공장의 힘찬 증산동음이 아이들의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처럼 메아리치고있었다.

본사기자 김 영 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나가는 주체조선**

은 나라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뚝고 헤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은 국제사회계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나 이 제 리 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어제날 식민지약소국이였던 조선이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조선이야말로 기적적인 사변들로 행성을 뒤흔드는 강대한 나라이다.

조선이 달성하고있는 모든 승리의 비결은 대를 이어 결출한 수령을 모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쳐있는데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를 놀패우는 기적과 혁신을 련일 창조하고있다.

기네스문 《호로야》는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다.

세계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국 조선의 모습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조선의 첫째가는 위력은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의 근저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무한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

그 뜨거운 사랑과 정은 천만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하고 있으며 단결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게 하고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로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 제 재 용 승 리 품 으 로 만 든 다

대가 흐른다.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렬하고 악랄한 제재압살책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며 창조와 전변의 기상높이 조선은 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궁지에 넘쳐 바라보는 개발자들의 눈에 비친것은 그보다 더 훌륭한 현대적인 제품도 능히 만들수 있다는 야심만만한 배심이며 그것을 리용하며 감탄하는 인민의 가슴마다에서 용솟음치는것은 자력자강의 힘으로 세계를 능히 따라앞설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어제는 주체위성이 우주로 치솟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비행기와 지하전동차, 성능 높은 새형의 트랙트와 화물자동차, 배스와 5000t급무역 짐배들이 련이어 태어나던 이 땅에서 오늘은 보기만 해도 멋있고 질 좋은 신발과 화장품들이 나오고 우리 식의 대형륜전기차가 세상에 태어날수 있게 되어 만사람을 기쁘게 하고있다. 과학농사의 위력을 보여준 1116호농장의 호숫한 농사작황과 파일군에서의 파일대풍, 세모지구의 대규모축산기지의 완공 등은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게 해주고있다.

이 모든것이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100%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룩하고있는 놀라운 기적들이어서 그 성과는 더욱 값지고 긍지높은것으로 되고있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듯이 위대한 인민에게는 위대한 령도자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자기의 힘을 믿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그것은 바로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력이다.

두해전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시며 이번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거하고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시였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주도해나가는 기관차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시고 전민과 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생산자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로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이 세상에 가장 힘있는 존재는 사람이며 인민대중의 힘처럼 무궁무진한것은 없다.

그러나 그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도 그것을 승리에로 지향시키고 이끌어주는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서 비로소 빛을 뿌리게 되는것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은 조선인민을 불가늠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워 천리마시대, 속도전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이 땅 위에 아침과 저녁이 다른 눈부신 기적과 전변의 력사가 펼쳐지고 인민들이 세세년년 바라온 강국의 꿈이 빛나는 현실로 되고있다.

하기에 얼마전 3월16일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성 단계에 들어간 대형륜전기차가 볼수록 멋있고 동력전달

장치들이 원만히 동작하는것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나라의 자동차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하시면서 오늘의 결심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개진현대화를 본래있게 밀고나가자고 하시였다.

지금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새것을 창조하며 만년을 헤쳐나가는 전체 인민의 얼굴에는 강국의 그날에 향유하게 될 행복에 대한 끝없는 희열감이 력력히 비껴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튼튼한 잠재력이 있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 신념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사변들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인 자강력과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 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다는 철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다.

리 정 철

나노기술부문에서 이뤄진 가치있는 성과들

나노미터규모에서 물질이나 재료, 체계를 조종하여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하는 나노기술은 21세기의 판권적기술로 큰 기대를 모으고있다. 나노기술의 중요성으로 하여 일부 나라들에서는 국가나노기술전략을 세우고 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으며 나노기술과 나노재료의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이 오늘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최근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17이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가나노기술국,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 농업연구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수십개 단위가 나노기술부문에서 이룩한 연구성과자료들이 출품되었다.

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의 눈길을 끈것은 룡악산기술연구소와 국가나노기술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나노교정수와 미량원소나노비료이다. 매우 적은 양을 써서 이전에 비해 알곡작물은 113%, 남새작물은 1.7배 더 생산하는 나노교정수와 미량원소나노비료는 자체의 원료, 기술에 의거한 대량생산이 가능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대비적으로 전시한 농업생산물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나노기술이 가지고있는 커다란 잠재력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전시회에서는 농업연구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에서 연구도입한 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도 호평을 받았다. 일반박막들에 비해 원가가 낮은 대신 사용기간은 2배나 길며 늘음률과 당김세기가 훨씬 우월한 이 박막은 온실용과 모관용, 식료 및 수산물



경제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이다. 자체의 경제적대대가 없이는 인민들의 생활상우를 충족시킬수 없고 경제발전을 떠난 민족의 부흥도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에서는 경제건설을 시종일관 자립의 원칙에서 진행하고있다. 자립경제는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이고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일제에게 억눌려살았던 하여도 억울하고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또 남에게 매여살수 있겠는가 하시며 남의 원조에 의하여 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제를 건설할데 대하여 밝히시었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후 빈터우에서 경제건설과업을 제시하실 때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다시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주석님이시다. 경제적자립을 떠난 국가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인민이 자주적으로 살어나가려고 주실심한이상 지배주의세력의 압력과 봉쇄는 불가피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를 뚫고나갈 자체의 강력한 물질경제적힘이 있어

자립경제의 위용을 과시하며

하여 움직이는 경제구조를 완비하였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철학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주석님의 뜻대로 공화국이 국내의 원료, 연료에 의한 철생산체계를 완성한것은 자립경제건설로선의 독창성과 정당성의 힘있는 확증이다.

야 한다는것이 주석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였다. 제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였기에 공화국은 미국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뇌까렸던 그 참담한 폐허속에도 다시 일떠섰고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할수 있었다. 자동차, 트랙터, 전기기관차, 선박 등 필요한것을 마음먹은대로 만드는 기계제작공업으로부터 동력, 화학, 야금공업 그리고 수산업,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국내자원에 의

장 올바른 선택이었기에 공화국은 남들처럼 평온한 환경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전쟁위험과 제재압박이 휩쓰는 것처럼 엄혹한 속에서도 거대한 경제적잠재력으로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지켜낼수 있었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제재압박놀음은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발로이다. 정치,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는것과 함께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공화국을 압박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오늘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러나 자기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경제는 지반이 공고하

인민들의 높아가는 식생활요구에 맞게

-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찾아서 -

봄내어름내 가꾸어온 알찬 열매들이 풍성한 식탁에 오르고 그것이 그대로 창조와 로동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이 가을에 우리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야! 냄새 정말 구수하다.》



공장에 도착한 우리가 맨처음 느낀것은 공장구내에 차넘치는 구수한 냄새였다. 《이 냄새는 강냉이의 물리력학적변성과정에 나오는것이랍니다.》 우리를 맞이한 박승철 기술준비실 실장의 말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강냉이는 다른 낱알에 비하여 영양성분함량은 많으나 그에 대응하여 소화성이 그리 높지못한데 소화성을 높이고 가공학적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변성문제가 실천적으로 나선다는것이였다.

냉이튀기, 강냉이차, 강냉이전빵, 강냉이미분가루, 강정, 강냉이우동... 《이 모든것들이 다 인민들로부터 호평받는 강냉이가공품들입니다.》 그의 말에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강냉이가공품을 생산하고있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수 있었다. 흰쌀과 적당한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보기에 도 좋고 밥맛도 구수하다는 옥쌀이며 구수한 맛과 향기를 주는 강냉이과자, 독특한 맛과 향기를 주는 강냉이단묵.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먹으면 성장발육에도 좋고 살결이 부드러워지는 미용효과까지 있는 강냉이튀기는 또 어떤가. 정말이지 하나같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강냉이

가공품들이였다. 이런 가공품을 40여가지나 생산한다고 하니 이 공장은 인민생활향상에서 민들로부터 호평받는 강냉이가공품들입니다.》 이어 우리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무인화된 국수생산공정이며 옥쌀생산공정, 전빵생산공정과 과자생산공정, 기름생산공정과 단묵생산공정을 돌아보았다. 생산과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송풍 및 려과장치 등을 새롭게 제작설치하여 생산공정의 무진화, 무균화를 보장하고있는가 하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경영, 품질, 전력관리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한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강냉이가공품들이 생산

되고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강냉이를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과 치료에 좋은 여러가지 기능성식품, 건강식품들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박승철실장은 지금 다양한 기능성식품, 건강식품개발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시마옥쌀과 비라민옥쌀, 인삼옥쌀과 같은 기능성 및 건강식품이 나올 날도 멀지않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강냉이 하나를 가지고 별의별 식품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강냉이가공식품의 래일을 그려보며 공장문을 나섰다. 본사기자 박철남

로동생활을 통해 본 두 현실

인간생활에서 로동생활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은 로동을 통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인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며 그 혜택을 누린다. 이로부터 인간은 누구나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로동에 참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으며 참담게 생활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가 아무 사회에서나 다 원만히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오직 근로하는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로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과 로동에 대한 공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주의로동조직, 로동에 의한 사회적분배, 기술혁명과 기술기능향상, 로동보호, 로동과 휴식,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책 등 로동생활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과 로동조직들이 포괄적으로, 전면적으

로 규정되어있다. 이 법에 의하여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로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으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 자리에서 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리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생산이 끊임없이 확대되는데 맞게 로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주고 필요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준다. 해마다 고급중학교졸업생들과 대학졸업생들, 제대군인들은 희망과 소질, 기술자력에 따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배치되어 안정된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받는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믿음직한 안전시설과 위생문화조건이 갖추어져있고 충분한 안전대책이 세워져있으며 로동안전을 전문담보해주고있다. 녀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은 로동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애기어머니들인 경우에는 국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속에 아무런 불편없이 로동생활에 참가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도 이러한 로동과 관련된 등 로동생활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과 로동조직들이 포괄적으로, 전면적으

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반면에 소수 특권층의 리윤추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반인민적인 법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로동자들이 자본의 착취속에 로동의 권리를 마구 침해당하고있다. 비정규직로동자들은 언제 일자리를 떼울지 모를 항시적인 불안과 고통, 해고위험속에서 시달리고있으며 비정규직이라 하여, 또 녀성로동자라 하여 같은 일을 하고서도 훨씬 적은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로동자들이 로동안전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데서 일하다나니 로동재해와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있다. 북과 남의 판이한 두 현실은 어느 제도가 진정으로 로동자들을 위하고 인민을 위한 사회인가를 용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이렇듯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공화국인민들은 남조선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해고》, 《실업》을 모르며 보람찬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본사기자 리설







《백두산 8경》 (5)

삼천리로국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

아득한 태고로부터 이 나라 강산을 한지맥으로 그려안고 조국의 북변에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 민족의 슬기와 넉이 깃든 조종의 산 백두산의 장군봉에 오르면 높고낮은 산발들과 끝간데없이 연연히 뻗어간 밀림의 바다를 지나 저 멀리 남해에 이르기까지 삼천리조국땅이 한 눈에 바라보이는 듯 하다. 하늘을 치받으며 우뚝 솟은 장군봉은 해발높이가 2750m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다. 장군봉은 지난날 백두봉, 대장봉이라고 불리워왔다. 그러던것을 백두산과 더불어 온 누리에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전하려는 겨레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장군봉이라고 부

르게 되었다. 장군봉의 제일 높은 곳은 천지쪽으로 약 45m 돌출되어있다. 돌출된 곳의 앞부분은 폭이 약 5m를 이루는 절벽으로 되어있다. 남쪽비탈면은 40°, 남동쪽비탈면은 30~35°로 급하며 서쪽은 높이 100~150m의 벼랑으로 되어있다. 장군봉 정점에는 《장군봉》이라고 새긴 화강석표식비를 세웠다. 북동쪽경사면중턱의 비교적 평탄한 지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 길이 전하는 백두산사적비가 정중히 건립되어있으며 그 가까이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 자리가 있다. 조선의 최고봉인 장군봉 마루에서 사방을 둘러보

면 항일의 총성이 메아리치던 전구들과 천지를 병풍처럼 둘러싼 백두의 천만산악, 가없이 펼쳐진 조국의 산발들과 골짜기, 아름답고 신비한 구름 등이 한눈에 안겨오는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져있어 끝없는 환희를 자아낸다. 주체52(1963)년 8월 백두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 올라오셨다가 장군봉에도 올라가보지 않으셨다면 열척 먹어야 할 약을 아홉척만 먹고 마지막 한침을 마저 먹지 않은것이나 같다고 교시하시었다. 주체103(2014)년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찾으셨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장군봉에 올라 조국강산을 바라보니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력사의 광풍을 부시며 조선혁명을 빛나

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이 안겨와 뚫어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하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어졌다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삼천리로국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은 공화국 군대와 인민에게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더욱 북돋아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태양조선의 천하제일경-《백두산8경》의 하나로 력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사회과학원 주제문학 연구소 연구사 한 인영

옷의 색깔과 무늬는 옷차림의 민족적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색이 진한것보다 연하고 부드러운 선명한 것을 좋아하였다. 이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색채에 대한 민족적인 미감이다. 우리 선조들은 주로 흰색과 옥색, 연분홍색이나 미색과 같이 색이 연하면서도 밝고 부드러운것을 옷색갈로 리용하였다. 또한 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중간색도 많이 리용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몇가지 안되는 물감으로 여러가지 중간색을 만들어 리용하였는데 대체로 붉은색계통의 색갈, 보라색계통의 색갈, 누런색계통의 색갈, 풀색계통의 색갈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이러한 색갈들은 우리 인민

의 옷생활에 다양하게 리용되었다. 녀성들은 계절적특성에 맞게 따뜻한 봄날에는 은근하면서 밝은 색갈인 연분홍색, 연록색, 미색계통의 옷을 많이 입었으며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색갈인 옥색과 연한푸른색계통의 옷을 즐겨입었다. 어린이들 역시 밝으며

력사적시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는데 세나라시기에는 기하학적무늬와 자연의 일정한 대상을 형상한 무늬가 많았다. 고려시기에는 기하학적 무늬와 함께 꽃, 나무잎 등의 식물무늬, 룡, 까치 등의 동물무늬, 해, 달과 같은 무늬들도 적지 않아

조선옷에 리용된 무늬들은 옷감의 재료와 옷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었다. 천에 무늬를 직접 짜넣는 직조방법과 판박이, 수놓이, 그림그리기 등의 무늬형상방법은 주로 비단류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배, 모시와 같이 성글게 짠 옷감에는 무늬를 놓지 않고 그대로 리용하였다. 때문에 옷무늬는 주로 비단옷에 많고 그밖의 옷감으로 지은 옷에는 무늬가 적거나 거의 없었다. 그런가하면 항라와 같은 천들에서는 따로 무늬를 형성하지 않고 다듬어 짠데 의하여 생기는 아름다운 자연무늬들로 자연미를 내는것을 더 고상하고 보기 좋은것으로 여겨졌다. 옷무늬는 남자옷보다 녀자옷에 더 많이 장식되었다. 본사기자

옷색갈과 무늬로 보는 우리의 민족옷차림

서도 연한색계통의 옷을 입었는데 특이하게 저고리의 소매, 깃, 고름 등을 다른 색갈로 만들거나 소매에 무지개색으로 장식된 색동저고리를 명절날에 즐겨입었다. 조선옷은 색갈과 함께 무늬에서도 자기의 민족적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옷의 무늬는 오랜

무늬의 주제내용이 이전 시기보다 풍부해졌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국화, 모란 등 여러가지 꽃무늬들과 포도넝쿨무늬, 나무잎무늬와 같은 식물무늬, 물고기, 학 등의 동물무늬가 많았다. 그밖에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글자무늬들이 새롭게 리용되어 무늬의 주제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본사기자

《무예도보통지》 조선의 첫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

최근 조선의 《무예도보통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발굴된 민족고전 《무예도보통지》는 우리 민족의 전통무술동작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한

군사관계의 도서이다. 지난 10월 30일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총국장은 우리 나라 《무예도보통지》의 《세계기록유산계획 국제등록부》 등록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대련도의 발상지인 우리 나라 민족무

술의 력사와 우수성을 보여주는 이 도서가 조선의 첫 세계기록유산으로 되었다. 지난해 도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아시아태평양지역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본사기자

의학부문에서 새로운 학문 성립

공화국의 의학부문에서 새로운 학문이 정립되었다. 녀성들속에서 임신초기에 자주 발생하는 난치성 산부인과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확립한 임신면역학이다. 학문에서는 습관성류산에 대한 원인에 따르는 새 치료방법의 기준을

확정하고 태출피해학구의 물리화학적성질과 상태, 생물학적인안전성 등을 밝혔다. 치료후 임신유지효과와 그 예측지표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승국은 새로운 의학리론이 확립된데 대해

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나라의 원료자재를 리용한 새 치료방법 확립의 리론적기초를 다지고 립상실천에 도입하였다. 녀성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임신면역학이 새롭게 정립됨으로써 조국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었다. 본사기자

가을과 겨울철건강에 좋은 무우

가을과 겨울철에 무우를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며 일부 질병도 치료할수 있다. 무우를 삶아 먹으면 위를 보호할수 있다. 무우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몸안에 쌓인 로페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국을 끓이는데 무우를 삶아 먹으면 소화기 잘되고 몸이 더워진다. 무우를 먹으면 감기

를 예방하거나 치료할수 있다. 무우는 매운맛을 내는 데다 염증을 없애는 작용도 하기때문에 가을과 겨울철감기치료에 리용할수 있다. 코감기에 걸렸을 때 무우즙을 내어 가래나 숨에 묻혀 코구멍에 넣고 있으면 증상이 현저히 완화된다. 목구멍이 아플 때 꿀에 잘게 썬 무우를 재워 먹어도 좋다. 본사기자

—무우시래기를 끓여낸 물을 마시면 미용효과를 볼수 있다. 무우시래기를 끓여낸 물을 차대용으로 자주 마시면 미용효과를 볼수 있는데 그것은 무우잎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때문이다. 비타민C는 항산화물질로서 멜라닌이 합성되는것을 억제하고 지방이 산화되는것을 방지한다. 본사기자



리규보와 《해좌7현》 (3)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그러나 6명의 벗들과 사귀게 되자 아낌없이 베풀어 내놓고 피사팔로 들어갔던것이다. 《좌》하는 골바라소리에 눈길을 드니 령마루였다. 오솔길 좌우로 아름답드리소나무며 참나무들이 울창하여 범이 새끼쳐도 모를것 같았다. 앞으로는 퍼그나 널직한 시냇물이 굽이쳐흐르는것이 보이는데 그 건너편 산기슭에 평장히 큰 불당이 솟아있었다. (그런즉 예가 피사팔이 분명하겠다.) 《저기 선 길손은 백운거사가 아니시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몸을 홑쳐 멀쩡 리규보는 음침한 산속에서 자기의 호를 불러주는 사람이 어데 있나 사방을 살피보았다. 그러나 사람의 형체라고는 그림자도 보

이지 않았다. (이거 귀신의 조화인가?!...) 《옹구만, 백운거사!》 《?...》 암만 둘러보아야 소리친 사람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나야, 나. 조통일세.》 하는 소리와 함께 난가리같은 나무단이 움설움설 다가오더니 푹 밟아서며 그뒤에서 한사람이 뛰쳐나왔다. 정말로 조통이었다. 키가 큰데다 힘 또한 장사같은 조통이 저보다도 엄청나게 큰 나무단을 안고있었으니 어찌 사람을 가려볼수 있었으랴. 《영락(조통의 자)선생! 그새 무고하시었소?》 리규보는 《해좌7현》의 막내이나 자기보다 다섯살 우연 조통의 거울진

손을 잡고 기뻐 소리쳤다. 《면바로 찾아왔구만!》 《뉘 면바로? 그럼 우릴 찾아왔다는건가? 히야, 이거 오늘은 해가 동쪽으로 질게 아니야?》 조통은 나무단은 아랑곳도 않고 리규보의 손을 잡아 정각쪽으로 이끌면서 벽작 고아였다. 《쌍명재(리인로의 호)선생! 로형들! 누가 찾아왔나 보시우. 기동(리규보의 아이적 별호)이 찾아왔소. 저 하늘의 구성이 국자감시에서 장원급제를 할거라고 점지해준 그 기동이 찾아왔단 말이 우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정각으로 모여들었다. 리규보는 그들에게 깊숙이 허리를 굽히었다. 《정정하신 선생님들을 뵈게 되어 기쁘오이다.》

리인로가 다가가 리규보의 손을 부여잡으며 울먹이었다. 《왔구만, 왔어. 아, 오형이 여길 찾아온 그뉘 봤더라면...》 《쌍명재선생님!》 《오형이 일찌기 우리 나라에 시재가 뛰어난 분이 났다고 그렇게 좋아



했었지.》 리인로에게 이끌려 정각에 들어가앉은 리규보는 싱글벉글 웃는 리담지며 립춘, 함춘, 황보함, 조통이들을 차마 면바로 바라볼수가 없

었다. 리인로의 말대로 좀 더 일찌기 여길 찾아왔더라면 오세재가 병을 핑계로 동경에 내려가지도 않았을런지 어이 알랴! 사실 오세재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아파 벗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머나먼 동

방구리와 안주가 든 청자합을 안고 정각으로 들어서며 떠들었다. 그제야 리규보는 눈길을 들어 정각안을 바로 볼수 있었다. 백학이 나래를 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듯 날씬하게 지은 함각지붕을 떠어난 정각안은 해종일 뜨는 해, 지는해를 다 받을수 있는 묘한 자리에 들어앉았다. 그안에 등근 상을 빙 돌아가면서 이들 일곱사람이 둘러앉을수 있도록 7개의 평상(의자)이 놓여있었다. 창자보시기에 술을 철철 따르며 리담지가 룡조로 말을 절었다. 《이보게 백운거사, 자네 덕전(오세재의 자)의 자리에 보결로 들어오지 않겠나?》 리규보도 흥그러운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룡조로 대꾸했다. 《칠현이 그 무슨 벼슬 자리라고 보결하고말고가 있겠소이까? 옛적에도 칠현들이 있었지만 후임을 보결했다는 그런 소리는

듣지 못하였소이다.》 이어서 리규보가 정색해서 말하였다. 《소인은 《해좌7현》들을 끝없이 공경하오이다. 또 나로서는 나에게 시짓는 묘리를 가르쳐준 오선생님의 자리를 메울만큼 재능이 없는데야 감히 어찌 그런 생각을 하리이까. 오선생님은 오늘도 래일도 저의 스승이옵니다. 이젠 저의 진심이니 두번다시 그런 말씀을 말아주소이다.》 리인로가 눈을 슴벅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파시 백운거사일세. 덕전이 후진을 잘 두었거든.》 리규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둘러보며 정중히 아뢰었다. 《선생님들! 전 과거에 급제하고서도 벼슬길을 등지고 청백하고 빈곤하게 살면서 많은 글을 쓰신 오선생님에게 어질고 깨끗하신분이라는 뜻에서 헌정이란 시호를 드렸으면 하오이다. 오선생님을 헌정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